

아토피여 이젠 안녕~

감사 아토피 Zero 산사학교



산사학교는 4박 5일동안 유기농 식사를 제공했다.



숲에 널려 있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붙여 만든 아이들의 작품들.

환경오염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현대의 '골칫거리' 아토피. 요즘 아이들 4명 중 1명이 아토피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문명병'이라 불리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아토피를 친구처럼 달고 사는 초·중학생 20명이 계룡산 감자주지 장곡을 찾았다. 생태지평과 불교환경연대, 대전시민환경연구소가 주최한 '자연이 키우는 아이들, 아토피 Zero 산사학교'에 참가한 아이들은 맑은 숲과 공기를 가진 산사에서 아토피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배웠다.

"집에 가서 과자 콜라 먹고 싶어요"

서울 신정동에서 온 정환(12·양동초교 5년)이는 "아~ 집에 가고 싶어요. 과자도 먹고 싶고, 콜라도 먹고 싶어요." 노래를 부른다. 아이들을 숲 체험장으로 인솔하던 이승화 선생님이 경환이를 달래느라 한참을 다독인다. 이번엔 준하(9·서울 공덕초교 2년)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여기저기 얼얼거리더니 대원에서 한점이나 뒤쳐



인드라마처럼 고리지어 얽힌 생태계를 배우는 아이들. 현대의 환경질환인 아토피의 원인과 치료법을 이변 산사학교에서 배웠다.

진 것이다. 그러나 산사에서 아이들은 변하고 있었다.

이날 숲 체험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 사각의 천을 준비한 지도교사는 아이들에게 동물 이름을 붙여주고 천을 중심으로 빙글러 앉힌다. 유빈(8·서울 문정초교 1년)이는 장수하늘소, 경도(12·남양주 수동초교 5년)는 고추잠자리... 제각각의 이름을 받은 아이들은 손으로 바닥에 놓인 사각 천을 잡았다. 지도교사가 목초액이 담긴 그릇을 천 가운데 놓고, 아이들에게 목초액이 얼질러 지지 않게 아이들을 일컫고 세운다.

아이들은 두 번이나 실패하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고 일어서는 데 성공했다. 그제서야 서로의 마음이 맞는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생님은 붙여준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천에서 손을 떼게 했다. 유빈이와 경도가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선생님이 고추잠자리를 호명했다. 경도가 손을 놓자 목초액이 담긴 그릇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 선생님의 말이 이어졌다.

"여러분이 다 함께 천을 잡고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동물이 하나 하나 사라지자 목초액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여러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면 자연도 존재할 수 있지만 동물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 자연도 존재할 수 없어요.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조절

산사학교 입학식날 아이들을 검진했던 강인정 한의사의 2차 검진이 이어졌다. 산사생활 4일째, 예상했던대로 아이들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

그러나 두명의 어린이는 호전됐다가 다시 나빠졌다.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명현현상(호전반응)일수도 있고, 환경이 아이의 기온과 맞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했다.

강인정 한의사가 아이들에게 묻는다. "아토피는 왜 생길까요?" 참가아이들 가운데 가장 부지런하다는 평을 받은 성준(11·서울 영신초교 4년)이는 물론, 아이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환경오염 때문이에요." "과자를 먹어서요." "가공식품이 해로워서요."

아이들의 답을 다 듣고 난 뒤 강인정사는 차근차근 설명한다.

"북한에는 아토피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깨끗하고 인공색소가 과자나 몸에 해로운 음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



산사학교가 열리기 전과 4일째 되던 날 두차례 아이들을 진료한 강인정 한의사(왼쪽)는 "아이들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진단했다.

분은 그걸 너무 좋아하죠? 아토피는 그런 음식에 든 독소를 몸이 다 소화시키지 못해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 독소를 제거하면 나올 수 있겠죠?"

치료법도 소상하게 일러줬다.

"아토피는 병이 아니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 조절이에요. 과자와 유해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해요. 다음으로는 매일 운동을 해서 땀을 빼면 독소가 함께 빠져 나와요. 운동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해야 해요. 물에는 녹차와 죽을 넣으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꼭 녹차와 죽을 우려서 목욕물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아토피가 낫는지 알았죠?"

"예!" 아이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다.

"녹차와 죽 넣은 물로 목욕 하세요"

5일이나 부모와 떨어져 지내며 자연과 가까이 한 산사학교는 아토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마무리됐다.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지수(13·광주 신광중 1년) 엄마는 "여름에도 반팔옷을 입지 못하는 아이를 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데, 본인은 오죽할까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많았다"며 "이번 산사학교에서 밝게 어

숲에서 자연 소중함 느끼고 아토피 원인·치료법 배워

울리는 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털어놓았다.

'아토피 Zero 산사학교'는 시민사회단체와 사찰이 현대 최고의 골칫거리로 일컬어지는 아토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은 의미 있는 '사건'이다.

가장 친자연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산사가 아토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생태지평에서는, 아토피 문제가 개인의 질병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아토피 Zero 산사학교'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김미현 생태지평 연구원은 "첫 산사학교의 성과를 향후 아토피 문제해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산사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글=박복영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원침의 등 은행석 온열복대

삼성전자, EMI,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선물로도 최고!

건강의 기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험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 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불이 70~80°C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칙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부터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 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료력 하며 당뇨 및 상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 오랫동안 참성기도 하시는 분
- ※ 허약한 靑회복
-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 이렛배가 냉하신 분
- ※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 권장
-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문의전화 : 타타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원칙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품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칙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칙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C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악성종양과 병행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C의 고열이 발생 원칙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체장까지 42°C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정 ◆요일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